

생수 햇빛 노출 금지됐지만…현장은 ‘나 몰라라’

고온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생수의 보관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선 판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외 적치가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고온과 직사광선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보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준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이 원칙이다. 창문이 있는 곳은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막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도 덮

정부, 7월부터 실내보관 원칙 시행…분기별 수거검사도

판매자들 “무겁고 부피 커 마땅히 둘 곳 없어 야외 적치”

개 등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보관 기준을 강화한 것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일부 화학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 야외에 장기간 보관된 생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티몬과 폴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검출량은 국내 먹는샘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이 새로운 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2년의 유예기간도 뒀다.

문제는 기준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광주지역 마트 등을 확인한 결과 매장 외부에 생수를 대량으로 쌓아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는 덮개를 씌웠지만 상당수 제품은 별도의 차광시설 없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남구의 한 마트 관계자는 “생수는 무겁고 보관 공간도 많이 필요해 밖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됐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유예기간이 있다고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한 마트 바깥에 페트병에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니 덮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구의 다른 마트에서도 생수가 매장 밖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별도의 차광시설이나 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인 만큼 판매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소 생수를 자주 구입한다는 배모씨(30)는 “생수는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집에서도 생수를 현관 앞에 보관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내에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특별시장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 먹는

샘물 유통·보관 실태에 대한 현장 안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특별시장도 물관리정책과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유상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모두 15차례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한 221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특별시장도 관계자는 “먹는샘물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수거검사로 지난달 12일 완료했다”며 “개정된 보관 기준에 따라 오는 4분기 수거검사부터 현장에 새로운 보관 방법과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SNS에 조롱 영상 올린 학생·부모 ‘손배 책임’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위자료 1200만원 주문

법원이 SNS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모습을 촬영해 게시하고 조롱한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재판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과 A군의 어머니 B씨가 가해 학생들과 부모 등 2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공동으로 A군에게 200만원, B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다시 촬영해 SNS에 올린 이른바 ‘2차 가해’ 행위에 관여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A군에게 800만원, B씨에게 160만원을 공동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뒤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롱성 댓글 등이 달렸고, 같은 해 4월18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웅빛고를근린공원에서 A군의 모습을 다시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때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군의 가방을 빼앗은 뒤 쫓아와보라고 달려갔고, 다른 학생은 A군의 움직임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웃는 모습을 촬영·게시했다. 다른 동성 학생에게 A군에게 뽀뽀해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

사태를 파악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보호자들에게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군 측은 이후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다른 학생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부모들의 책임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에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로비에서 열린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차별없는 장애인 권리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통합 출범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경찰, 드론·지상 순찰 연계…사고 예방

지정차로 위반·화물차 적재불량 등 대응 강화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드론과 지상 순찰을 연계한 ‘자공(地空) 입체순찰’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1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르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작은 교통법규 위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찰은 지상 순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 상황과 위험행위를 드론으로 살펴며 순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은 상공에서 차량 흐름을 살펴면서 지정차로 위반과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를 확인한다.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고속도로순찰대

가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현황과 도로 여건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드론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찰헬기를 활용한 공중순찰도 병행해 도로상 위험요인 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조재성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론과 지상 순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